

총괄: 2018년 북한경제, 위기인가 버티기인가?

이석 |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suklee@kdi.re.kr

I. 서론

본고는 2018년 북한경제의 동향에 대한 여러 분석 논문들을 총괄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¹⁾ 실제로 본고는 본고와 함께 발표될 2018년 북한경제 분야별 동향 분석 논문 6편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하나의 평면 위에 종합함으로써 현재 북한경제의 모습을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조망 해보려는 목적을 갖는다. 또한 이를 토대로 앞으로 북한경제의 움직임을 전망하고, 이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해 보려는 의도를 갖는다.²⁾

그런데 미리 솔직히 고백하자면, 본고는 이러한 ‘글의 본래적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는 방향으로 서술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본고는 현재의 북한경제와 관련하여 외부세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다른 시각들을 소개하고 이를 대비시키는 데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본고에서 이렇게 글을 서술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현재 외부세계에서는 2018년 북한경제에 대해 서로 화해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다른 평가를 내리는 시각들이 공존한다. 한편에서는 2018년 북한경제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1) 「KDI 북한경제리뷰」는 매년 초반 이전 해의 북한경제동향을 분석하는 논문들을 게재한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논문들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북한경제의 각 분야별 동향을 서술하는 개별 논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 분야별 논문들을 정리하여 종합하는 총괄 논문이다. 본고는 2019년 2월 「KDI 북한경제리뷰」에 게재될 2018년 북한경제 분야별 동향 논문들을 종합하는 총괄 논문이다.

2) 이종규, 「제재에 대한 북한의 정책대응: 2018년 동향 및 2019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9; 이석기, 「2018년 북한 산업 및 실물경제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9; 정형근, 「2018년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와 전망: 최근 5년간 북중무역 비교를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9; 김석진, 「2018년 북한 시장 동향과 2019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9; 김영훈, 「2018년 북한의 식량 수급 평가와 2019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9; 조남훈, 「비핵화 및 경제건설 총력집중전략에 따른 북한 군수공업의 성과 및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9

여전히 굳건하게 ‘버티기(muddling-through)’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명시적으로 관찰하기가 어려울 뿐 북한경제는 이러한 제재로 인해 이미 일종의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처럼 다른 평가와 시각들은 본고의 저자를 비롯하여 2018년 북한경제 분야별 동향 분석 논문을 『KDI 북한경제리뷰』에 기고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은 이들 연구자들을 벗어나 북한경제를 오랫동안 바라본 여러 다른 학자들과 관찰자들로 나아가는 경우 더욱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북한경제의 분야별 동향을 하나로 종합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과 평가를 토대로 쓰여진 각각의 분야별 분석 논문들의 내용을 단순히 하나로 취합할 경우 이들은 서로가 매우 다른 말을 해서 우리의 현실 인식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의 내용을 강제로 화해시키기도 쉽지 않고, 또한 이는 결코 바람직한 일도 아닐 것이다. 이 경우 각각의 분야별 논문에 내재되어 있는 시각과 평가들이 하나로 녹아들기보다는 오히려 총괄자의 개인적인 시각에 점령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앞서 언급한 ‘글의 본래 목적’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그것은 2018년 북한경제와 관련하여 현재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시각과 평가들 자체를 가감 없이 그대로 드러내어 서로 대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이들 다른 시각과 평가들을 토대로 작성된 2018년 북한경제의 각 분야별 동향 분석 논문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글을 서술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북한경제와 관련된 서로 다른 시각과 평가들이 정리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드러내고 대비시키기 위해서는 본고에서 이들의 내용을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필자는 본고에서 크게 세 가지의 작업을 수행한다. 첫째, 2018년 북한경제와 관련하여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시각과 평가들을 공통의 방법과 변수들을 토대로 정리한다. 둘째, 이들 다른 시각과 평가들을 토대로 작성된 2018년 북한경제의 각 분야별 동향 분석 논문들의 내용을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사실들’만을 위주로 종합한다. 셋째, 앞서 정리된 서로 다른 시각과 평가들을 이처럼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사실들에 투영하여 이들 각각의 시각과 평가들이 2018년 북한경제를 어떻게 다르게 보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절에서는 2018년 북한경제의 각 분야별 동향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하거나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보이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사실과 사안들은 시각에 따라 매우 다른 방식과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인다. 3절에서는 이처럼 다른 해석과 관련하여 2018년 북한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에서는 2018년 북한경제가 더욱 강화되는 대북제재에서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음을 논한다. 4절에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부정적 시각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이를 통해 앞서의 긍정적 시각과는 달리 2018년 북한경제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현재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역시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한다.

II. 관찰 - 2018년 북한경제의 모습

현재 외부세계에는 2018년 북한경제와 관련하여 서로 매우 다른 평가가 공존한다. 그런데 이처럼 다른 평가들은 2018년 북한경제에 대한 서로 다른 관찰결과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일련의 공통적인 관찰결과들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이들 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차이를 보일 뿐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선 이들 서로 다른 평가들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2018년 북한경제에 대한 일반적 관찰결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한다.³⁾

1. 추세와 실적

<표 1>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은행이 추정한 북한의 GDP 성장률과 중국의 세관 당국이 제공하는 북중무역액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북한의 GDP 성장률은 -3.5%로 2016년의 3.9%에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 비교적 양호했던 북한의 경제상황이 2017년 들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대외교역에서 비롯되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해 2017년 들어 이제까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국제적 대북제재가 연이어 발표되었다는 뜻이다. 실제로 UN 등 국제사회는 2017년 8월 유엔안보리 결의안 2371호를 필두로 하여, 9월에는 결의안 2375호, 12월에는 결의안 2397호를 연이어 의결함으로써 북한의 주요 수출입 상품 교역 대부분을 차단하는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2017년 하반기 북중무역 규모는 전년

3) 본 절의 내용은 독립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본고와 함께 발표될 2018년 북한경제의 각 분야별 분석 논문들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의 해당 내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각 분야의 개별 논문들을 참고하라.

<표 1> 북한의 GDP 성장률과 북중무역액 추이, 2010~17년

(단위: %, 천달러)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성장률	-0.5	0.8	1.3	1.1	1.0	-1.1	3.9	-3.5
북중무역 총액 (증감률)	3,465,678 (102.6)	5,629,192 (62.4)	5,930,542 (5.4)	6,544,694 (10.4)	6,363,991 (-2.8)	5,430,408 (-14.7)	5,826,431 (7.3)	4,978,702 (-14.5)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접속일: 2019. 2. 20); KITA(www.kita.net, 접속일: 2019. 2. 20).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5%가 하락하였으며, 2017년 연간 전체 기준으로 그 하락폭은 1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7년 하반기 이후 더욱 강화된 국제적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대외무역이 급격히 줄어들고, 이것이 다시 전반적인 성장률의 하락으로 연결되었다는 뜻이다.

2018년 북한경제는 이처럼 강화되는 대북제재를 기본적인 환경 조건으로 하여 출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제재는 2018년 들어 북한의 대외교역을 더욱 위축시켰던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2018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2017에 비해 무려 87%가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하락률은 2월과 6월에는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북한의 대중국 수입 역시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북한의 대중국 수입 규모가 2017년 하반기부터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8년에는 2017년에 비해서도 무려 33%나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보면 2018년 북한의 대외교역은 거의 ‘붕괴(collapse)’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위축되었다고 말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대외교역의 위축으로 인해 2018년 북한의 산업생산 역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관찰된다. 무엇보다 대외수출이 봉쇄된 석탄과 철광석 같은 지하자원을 중심으로 광업 생산의 위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같은 이유에서 그간 중국으로부터의 위탁가공생산에 의존하던 섬유류와 같은 경공업 생산 역시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2018년과 같이 대외교역이 급격히 침체하는 상황에서는 북한 당국의 대규모 토목건설사업 역시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소요되는 노동력과 국내적 자재들은 자체 조달이 가능하나, 이들 사업의 주요 마감재들은 모두 해외에서의 수입으로밖에 충당할 수 없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북한 당국이 경기부양이나 여타의 정치경제적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주의적 노력 동원 사업 역시 크지 않았다.

〈표 2〉 2018년 북한의 월간 대중국 무역 추이

	수출		수입		총액	
	금액 (천달러)	전년대비 (%)	금액 (천달러)	전년대비 (%)	금액 (천달러)	전년대비 (%)
2018년 1월	36,410	-82	168,877	-30	205,287	-54
2월	8,854	-95	102,663	-32	111,517	-66
3월	11,804	-89	142,928	-56	154,732	-65
4월	11,776	-87	161,928	-43	173,704	-54
5월	13,649	-88	217,225	-32	230,874	-47
6월	12,965	-91	204,193	-38	217,158	-55
7월	17,140	-89	177,477	-41	194,617	-57
8월	19,188	-93	200,672	-36	219,860	-63
9월	18,202	-87	200,331	-25	218,533	-46
10월	17,888	-79	227,454	-07	245,342	-25
11월	20,045	-80	227,702	-21	247,747	-36
12월	21461	-58	207425	-20	228887	-26
연간	209,382	-87	2,238,875	-33	2,448,258	-51

자료: KITA(www.kita.net, 접속일: 2019. 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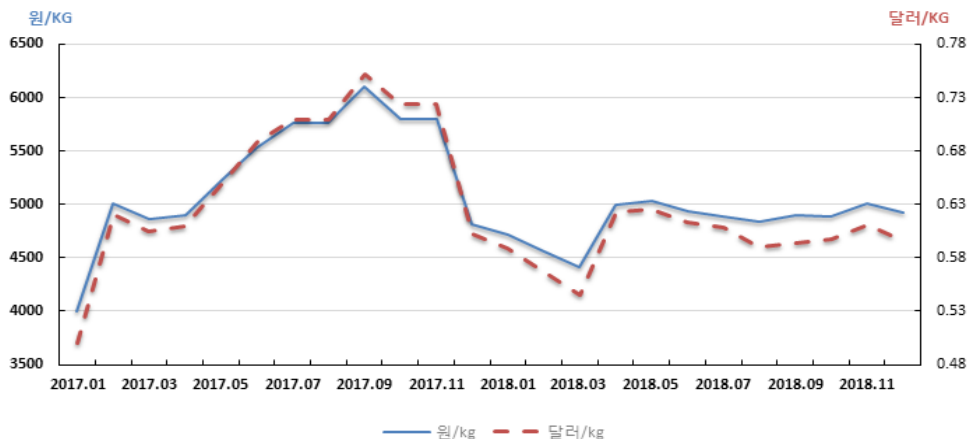
그 결과 북한 당국에 의해 의식적으로 추진되는 산업생산 증대효과 역시 2018년에는 크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뒤에서 보다 자세하게 토론하겠지만, 2018년에는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비공식 생산활동도 예년과는 달리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7년 하반기 이후의 강력한 대북제재의 결과 북한주민들의 외화 소득이 줄어들고, 이것이 다시 전반적인 시장의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면서, 시장생산활동 역시 예년만큼 빠르게 증대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8년에는 북한의 공식적 산업생산 활동과 시장부문의 비공식적 생산활동 모두가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저조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분야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전력 생산을 살펴보자. 2018년 북한의 강수량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그간의 가뭄으로 상대적으로 침체상태에 있었던 북한의 수력발전이 2018년에는 일정 부분 증가세로 돌아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2018년에는 설비 능력 확충 공사가 완료됐다고 알려진 북한의 북창화력발전소의 가동이 확대되었을 개연성도 존재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수출이 중지된 무연탄을 포함하여 북한 당국이 이들 화력발전소에 충분한 원료를 공급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발전소의 새로운 설비 효과와 맞물려 북한의 화력 발전량 역시 예년에 비해 증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2018년의 경우, 여전히 불확실한 측면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평양을 비롯한 북한 일부 지역의 전력소비가 늘어났다는 관찰결과 역시 존재한다. 과거 북한의 일반 가구에는 제대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았던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2018년 평양의 경우에는 각 가구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도입할 정도로 전력공급이 원활했다는 보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2018년 북한의 산업생산은 대외 교역과 연관된 부분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침체를 면치 못하였으나, 전력 등 일부의 생산부문에서는 예년에 비해 오히려 생산이 늘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한편, 2018년 북한의 농업생산 역시 산업생산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북한의 농업생산 자체는 2016년과 2017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관찰된다.⁴⁾ 그러나 이러한 농업생산량의 정체가 곧바로 북한의 전반적 식량사정의 악화로 연결되지는 않았다는 보고이다. 실제로 2018년 북한의 식량사정이 예년에 비해 크게 악화되었다는 관찰결과는 현재로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1] 2018년도 북한의 시장물가 추세 - 시장 쌀가격



주: 원 데이터는 NK Daily 시장 쌀가격 이나, 이를 정련한 KDI 통계를 사용
자료: KDI 통계데이터베이스

4) 2018년 농업생산량은 약 5백 4십만톤으로 전년도 생산량 5백 7십만톤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관찰된다. 이에 대해서는 김영훈, 「2018년 북한의 식량 수급 평가와 2019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9를 참고하라.

이처럼 2018년 북한경제는 대외교역부문의 악화를 배경으로 전반적인 산업 및 농업 생산이 예년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관찰된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일부 분야에서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것이 전반적인 교역과 산업의 침체 경향을 역전시킬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2018년에 들어서도 북한의 시장물가는 매우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북한의 시장물가를 대표하는 쌀가격의 경우 2017년 하반기에는 kg당 6,000원대를 상회하기도 했으나 2018년 들어서는 kg당 5,000원대로 하락한 상태에서 연중 거의 변화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관찰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8년 들어 북한의 대외교역이 거의 '붕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급격히 줄어들고, 이로 인해 산업생산 역시 침체를 면치 못했으나, 북한의 시장물가만은 예년과 유사하게, 아니 예년보다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것이다.

2.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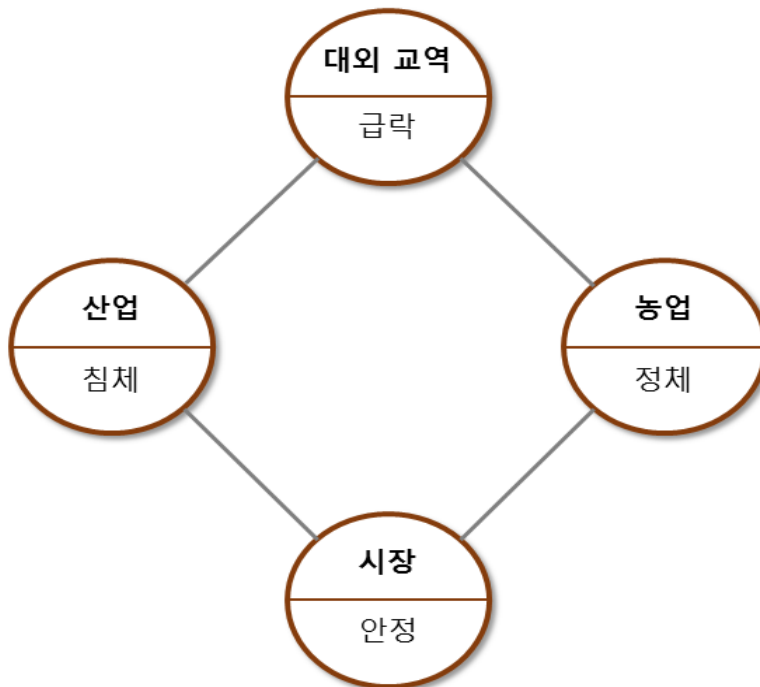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2018년 북한경제에 대한 외부세계의 관찰 결과는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①2018년 북한경제는 2017년 하반기부터 더욱 강화되기 시작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전반적인 거시경제환경이 크게 악화되는 환경에서 출범하였다. ②이로 인해 2018년 북한의 대외교역은 대중국 수출이 전년에 비해 87%가 하락하고, 대중국 수입이 33%가 감소하는 등 거의 붕괴에 가까울 정도로 위축되었다. ③산업생산 역시 대외교역과 직접적 연관을 맺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특히 그간 빠른 성장세를 보이던 시장에서의 비공식적 생산활동 역시 정체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④다만, 북한의 식량사정은 예년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전력 등 일부의 산업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⑤무엇보다 2018년에도 북한의 시장 물가는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관찰결과들은 2018년 북한경제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약간은 혼란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물론 이들 관찰결과들을 종합할 때 2018년 북한의 경제상황은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았던 2017년에 비해서도 더욱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악화의 정도이다. 예를 들어, 위의 ①, ②, ③의 관찰결과에 집중해 보자. 이 경우 2018년 북한경제의 상황은 일종의 위기이거나 또는 이러한 위기로 나아가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강화되는 대북제재의 결과로 북한의 교역이 사실상 붕괴하고 그 결과 이제는 북한의 공식 부문과 시장 모두에서 생산활동 자체가 영향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반면

위의 ④와 ⑤의 관찰 결과를 강조하면 사정이 조금 달라진다. 이 경우 북한경제는 점증하는 대북제재의 압력 속에서도 자체적인 내구력을 토대로 일종의 ‘버티기’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북제재로 교역이 위축되고 산업생산이 침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안정적이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기본적인 물자의 공급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2018년 북한경제에 대한 현재까지의 관찰결과들은 서로가 조금씩 다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외부세계에서는 이들 관찰결과들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여 2018년 북한경제에 대해 매우 차별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존재한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이처럼 다른 해석과 평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2] 2018년 북한경제의 분야별 키워드



III. 긍정적 시각 - 제재에서의 버티기와 내구성

앞에서 우리는 2018년 북한경제에 대한 몇 가지 관찰결과들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현재 외부세계에는 이러한 관찰결과들을 토대로 2018년 북한의 경제상황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 평가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시각이 2018년 북한경제가 양호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2018년 북한의 경제상태는 2017년에 비해 더욱 악화되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각에서는 2018년 북한경제의 내구력을 동시에 강조한다. 2017년 하반기 이후 더욱 강화된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경제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경제 특유의 내구력으로 이러한 제재의 효과 또는 그에 따른 고통이 북한경제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른바 북한경제의 ‘버티기’가 2018년에도 여전히 유효했다는 의미이다.

1. 무역 - 버티기를 상징하는 대중수입

그렇다면 이러한 시각은 어떤 근거에 기초하고 있을까? 조금 의외일지도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각을 가지는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스스로의 시각을 ‘매우 정련된’ 형태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시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별도의 방법을 사용한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시각을 구성하는 기본적(공통적)인 논리 또는 입장을 추출하여 이를 대신 정련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각은 해당 경제학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차별적인 논리와 입장으로 구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부분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2018년 북한의 교역에 대한 시각이며, 다른 하나는 시장에 대한 시각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2018년 북한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교역과 시장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토대로 재구성하고자 시도한다.

우선 [그림 3]을 살펴보자. 이미 언급한 것처럼 2018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에 비해 무려 87%가 하락하였다. 그런데 북한의 대중국 수입은 33% 하락하는 데 그쳤다. 북한의 대중국 수입이 수출에 비해 하락 폭이 현저히 작았다는 의미이다. 당연히 이로 인해 북한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2018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두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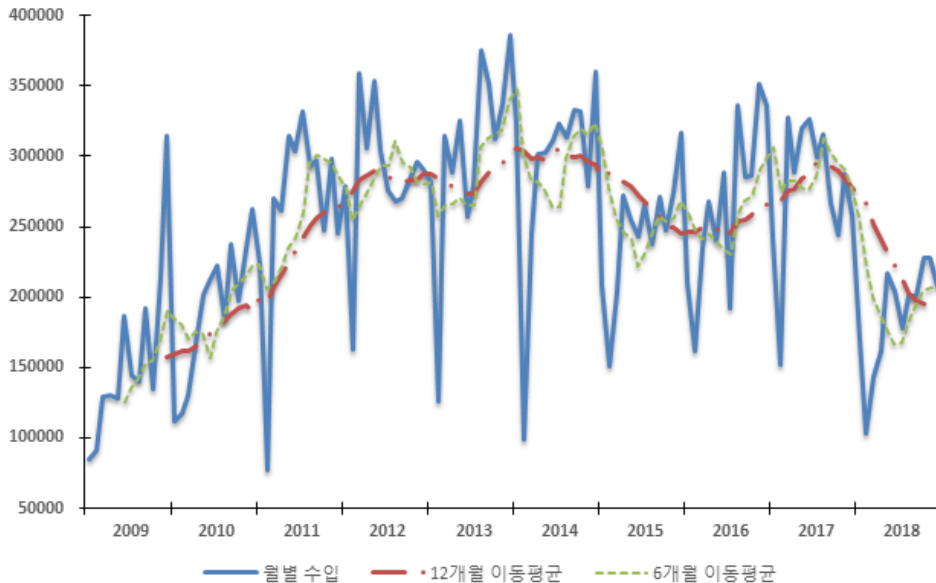
측면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첫째, 무엇보다 이는 북한경제가 아직까지는 이러한 수입을 실행할 만한 일정한 경화(달러)를 보유하고 있음을 뜻한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전년에 비해 90% 가까이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일정한 수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급속한 무역적자의 확대를 감내할 수 있을 만큼 일정한 경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8년 북한경제가 대중국 수출이 거의 붕괴되는 상황에서도 일정 정도의 수입을 실현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북한의 경화 보유 규모가 극단적으로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둘째, 더욱이 [그림 3]에서 보듯이 2018년 북한의 대중국 수입은 2017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2009년이나 2010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18년의 대중국 수입규모가 하락하기는 했지만 이를 통해 최소한의 북한경제를 유지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북한경제 스스로가 점점 강화되는 대북제재에 맞서 이른바 ‘버티기’를 지속할 수 있을 정도의 자원은 해외에서 여전히 수입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림 3] 2018년도 북한의 대중국 수입추세: 원데이터 vs. 이동평균

(단위: 천달러)



자료: KITA(www.kita.net, 접속일: 2019. 2. 20).

이처럼 2018년 북한의 대중국 수입을 보면, ① 북한경제는 여전히 일정 정도의 경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② 이를 통해 수출이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북한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입은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8년 북한의 무역은, 한편으로는 대북제재의 효과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대항하는 북한경제의 ‘대외교역부문에서의 내구력’ 역시 상당함을 함께 보여주는 경험적 증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시장 - 제재의 영향권에서 비껴나 있는 시장 상황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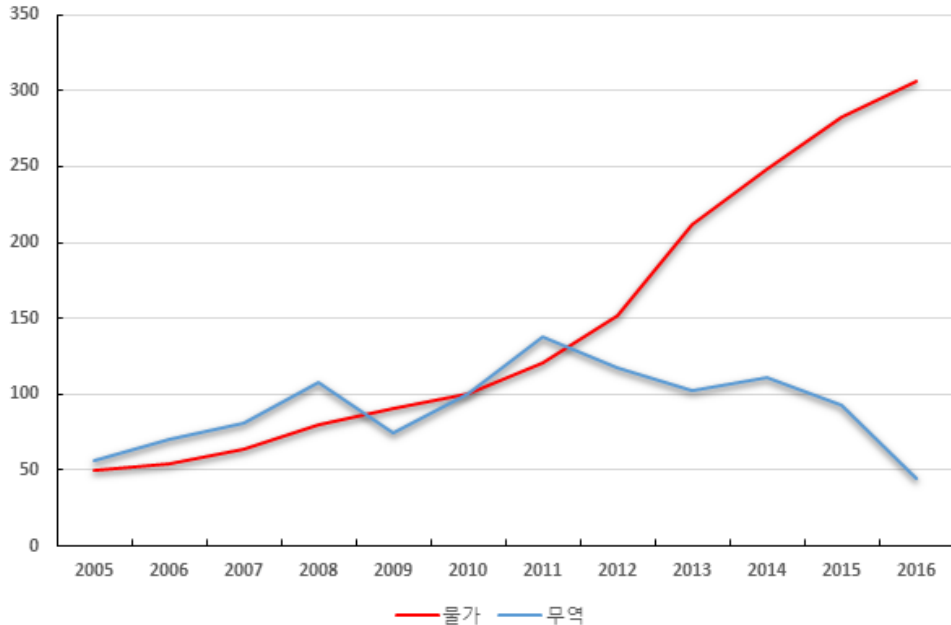
그런데 2018년 북한의 무역을 이러한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 해의 산업생산이나 시장상황 역시 조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8년 북한의 산업생산은 대외교역과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침체에 빠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침체가 경제 전반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었으며, 무엇보다 전력 등 일부 산업분야의 실적은 양호했던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의 시장물가 등 전반적 가격변수 역시 2018년 내내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2018년 북한 대외교역의 악화가 산업생산이나 시장활동과 같은 대내부문의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뜻한다. 2018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경제가 어려움에 빠진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어려움은 대외교역 부문에 한정된 것으로 아직 북한의 대내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시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그림 4]를 살펴보자. 여기에는 2010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가 이란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아주 간단하게 제시되어 있다.⁵⁾ 이란은 과거 북한과 마찬가지로 핵무기를 개발하려 시도하였으며, 이로 인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유엔안보리가 다양한 대이란 경고 및 제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2008~10년 기간 동안 전면적인 대이란 경제제재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제재는 이후 이란경제에 상당한 고통을 미쳤으며, 이것이 2015년에 이란이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새로운 ‘핵 협정’을 체결하는 경제적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하여 [그림 4]에서는 2008~10년 본격화된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이후 2015년까지 이란의 대외무역과 시장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매우 개괄적으로 집약하고 있다.

5)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의 전반적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Haidar, J.I., "Sanctions and Exports Deflection: Evidence from Iran," Paris School of Economics, University of Paris 1 Pantheon Sorbonne, Mimeo, 2015를 참고하라.

[그림 4] 국제적 경제제재에 따른 이란의 무역 및 시장물가 변화

(2010년=100)



자료: World Bank(<https://data.worldbank.org/>, 접속일: 2019. 2. 20); KITA(www.kita.net, 접속일: 2019. 2. 20).

이에 따르면 이란의 시장물가는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무려 3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 이후 강화되는 국제제재로 인해 생필품 가격 등 이란의 시장물가가 급등했고, 그 결과 일반 주민들의 구매력과 후생이 크게 악화된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이란의 내부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옹당 이러한 고통은 2015년 이란이 미국 등과 새로운 핵 협정을 체결하는 한 가지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기간 중 이란의 대외교역은 그렇게 극적으로 붕괴(?)되지 않았다. 실제로 2010~15년 사이 이란의 대외교역 규모는 연간 기준으로 2010년에 비해 최대 20% 정도만이 하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론 2015년 이란 수출의 경우 예년에 비해 심각할 정도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이 역시 2010년 수준에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은 유지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란의 수입의 경우 이 기간 내내 2010년 수준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⁶⁾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란에서는 시장물가가 3배 가까이 상승하여 제재의 고통이 직접 일반 주민들에게 까지 파급되는 현상이 초래된 것이다.

6) 2010년 이후 이란의 수출입 수치는 한국무역협회(<https://www.kita.net/>)를 참고하라.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2018년 북한경제는 국제적 경제제재로 인해 대외교역이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2017년에 비해서도 대중국 수출이 87%, 수입은 33%나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시장물가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 결과 제재의 충격이 직접적으로 일반 북한주민들에게까지 파급되었다고 말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란의 경우 대외교역이 극적으로 변모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국제사회의 제재로 시장물가가 교란되었는데, 2018년 북한에서는 대외교역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과정에서도 제재에 따른 시장물가의 상승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2018년 북한경제는 왜 이처럼 이란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을까? 물론 현재의 수준에서 이에 대해 정확한 대답을 내리기란 불가능하다. 이에 소요되는 데이터와 정보가 거의 모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주목해야 할 사실은 2018년 북한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이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또는 네 가지의 가설(대답)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것들은 바로 ① 밀수 등 등 비공식 무역, ② 북한 당국의 정책 1 - 전략적 대외교역, ③ 북한 당국의 정책 2 - 수입대체(국산화 정책), ④ 북한식 시장의 효율성 등이다.

첫째, 우선 2018년 북한의 실제 대외교역은 통계상 나타나는 것만큼 극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북한은 주변 국가들과 밀무역을 포함한 다양한 비공식 무역을 매우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비공식 무역이 2017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공식 무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UN의 대북제재 패널을 비롯한 다양한 외부세계의 기관들은 북한의 밀수 행위와 같은 제재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이러한 비공식 무역활동이 2018년에 크게 늘어났다면, 한편으로는 북한의 실제 무역규모가 통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크게 줄지 않았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설사 공식 무역의 감소로 시장물가의 상승압박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공식 무역으로 효과적으로 해소했을 수도 있다. 시장물가의 상승압박이 나타나는 품목을 주로 밀수하는 것이 비공식 무역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 당국 스스로가 2018년 대외교역을 매우 전략적으로 진행하여 시장물가의 급격한 상승 등 경제 내부의 혼란을 최소화하려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8년 북한은 대중국 수출이 거의 90% 가까이 붕괴하는 상황에서도 수입만큼은 2017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옹당 이는 북한의 내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해외물자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이러한 해외물자의 조달을 과연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실행했을까? 만일 이러한 우선순위가

의도적으로든, 아니면 결과적으로든 북한의 시장물가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상품들에 주로 두어졌다면, 2018년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이에 따른 시장물가의 상승 압박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가설은 2018년 북한의 대중국 수입품목의 상세 내역을 확인하면 쉽게 검증 가능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국의 세관 당국에서 2018년 4월 이후 세부적인 북중무역 통계데이터는 발표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이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셋째, 위의 가설과 유사하게 최근 북한 당국이 강조하는 이른바 국산화 정책 또는 북한의 자체적인 (시장)생산능력의 확대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 김정은 정권은 국산화 정책을 통해 북한의 수입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리고 그간 북한의 자체적 (시장)생산능력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만일 이러한 두 가지 경향이 2018년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면 대외교역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상품 공급 확대가 이를 어느 정도 만회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넷째, 마지막으로 북한시장의 효율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현재의 북한시장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전국적으로 매우 잘 짜여진 상품 공급 네트워크가 존재하며, 이러한 네트워크는 중국 등 해외지역과 공식 또는 비공식 무역으로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따라서 북한시장에서 특정분야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여 시장가격이 변화할 경우 그에 따른 공급조정이 매우 신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시장에서 LPG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상승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차량을 통한 중국으로부터의 LPG 공급이 늘고, 중기적으로는 선박과 열차를 이용한 러시아로부터의 공급이 늘어나는 등 공급조절을 통한 가격의 재조정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시장이 해외시장과의 공식 또는 비공식 무역을 통해 상당히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렇게 보면 2018년 북한의 공식적 대외교역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북한시장 자체의 효율적 기능으로 가격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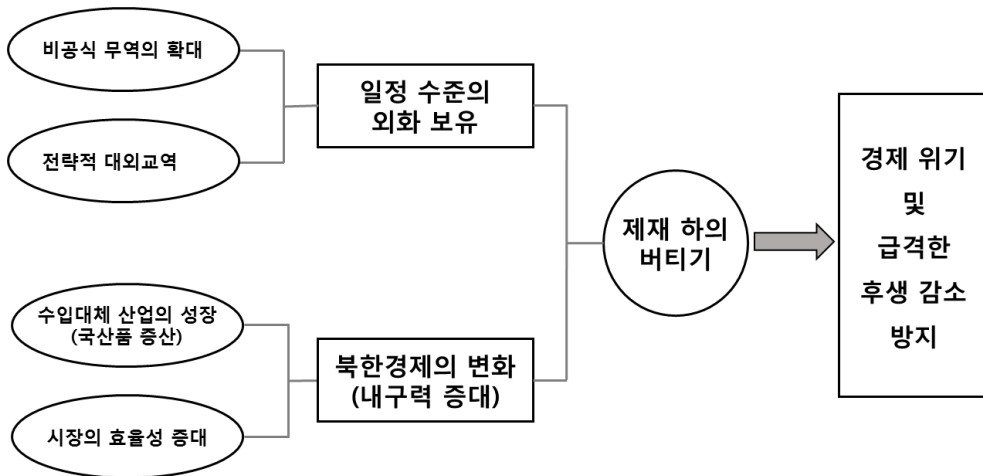
3. 2018년 북한경제 - 체제의 내구성과 버티기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2018년 북한경제를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물론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시각도 2018년 북한경제가 대외무역을 중심으로 상대적인 침체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각에 서게 되면 2018년 북한경제는 여전히 일정한 경화(달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내부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해외물자를 효과적으로 수입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산업생산의 침체가 악화되고 시장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방지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2017년 이후 더욱 강화된 대북제재의 효과가 2018년에도 북한의 내부경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시각에 서게 되면 2018년 북한의 시장물가가 안정될 수 있었던 원인 역시 나름대로 추론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현재의 북한경제에서는 밀수 등 비공식 무역이 활발하고, 2018년에는 이러한 비공식 무역이 더욱 활성화됨으로써 제재로 위축된 공식 무역을 보완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의 전략적인 대외교역 운영이나 국산화 정책도 시장가격의 안정에 기여했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간 발달한 북한시장의 효율적인 국내의 상품 공급망이 이러한 시장가격의 변동에 안전판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림 5] 긍정적 해석 - 2018년도 북한경제의 '버티기'



그런데 만일 이러한 결론들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2018년 북한경제와 관련하여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한 가지 단어를 또다시 떠올리게 된다. 그것은 바로 ‘북한경제(체제)의 내구성’이라는 단어이다. 비록 표면적으로는 2018년 북한경제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현재의 북한경제를 위기로 몰아 넣거나 또는 이의 변화를 유도할 만큼 의미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2018년의 악화된 대외환경 속에서도 북한경제는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내구력을

충분히 보여주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시각이 2018년 북한경제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일까?

IV. 부정적 시각 - 위기의 시작과 어두운 전망

앞에서 우리는 2018년 북한경제에 대한 몇 가지 관찰결과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결과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 역시 소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8년 북한경제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대외부문의 충격이 현실화되었지만, 이러한 충격이 대내부문으로까지 전면화 된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항한 북한경제의 '버티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현재 외부세계의 관찰자들 사이에는 이러한 긍정적 시각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경제학자들은 앞서 언급한 2018년 북한경제에 대한 관찰결과들을 토대로 "현재 북한경제가 이미 위기에 직면해 있거나 또는 조만간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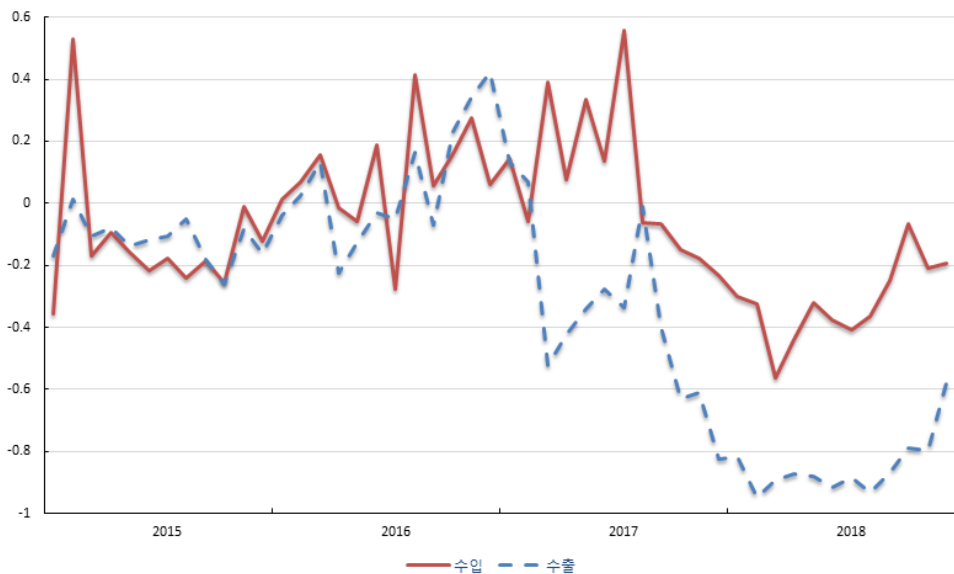
1. 무역 - 현실화된 대외교역의 구조적 붕괴

물론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 또는 시각 역시 현재로서는 '엄밀하고 정련된' 형태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앞서 살펴본 긍정적 시각과 마찬가지로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북한경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디딤돌인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2018년 북한경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 역시 앞서의 긍정적 시각과 마찬가지로 주로 무역과 시장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 스스로가 나름대로 정리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그림 6]은 2015년 이후 북한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을 하나의 평면 위에서 그리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수출과 수입은 2016년까지는 서로 비슷한 추세를 보였으나, 2017년 이후에는 그 추세가 서로 달라졌고, 최근에는 다시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7년부터 북한의 수출이 먼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일정한 시차를 두고 북한의 수입이 이를 뒤쫓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물론 언뜻 보면 이는 매우 당연한 현상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2017년부터 본격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우선은 북한의 외화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대중국)수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즉,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일단 북한의 수출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북한의 외화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에, 북한의 수입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처럼 매우 당연해 보이는 현상이 2018년 북한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림 6] 북한의 대중국 수출 및 수입액의 상호 연관 추세(2015. 1.~2018. 12)



자료: KITA(www.kita.net, 접속일: 2019. 2. 20).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2010년 한국의 5.24 조치로 남북경협이 중단된 이후 북한의 대외교역은 중국이라는 한 나라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북한의 대중국 교역량은 2010년 이후 비약적으로 증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대중국 무역적자 역시 크게 확대되었다. 즉, 북한은 언제나 중국에 대해 수출보다는 수입을 더욱 많이 기록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러한 무역적자를 어떻게 해결해 왔을까? 물론 이에 대해서는 현재 상당한 논란과 논쟁이 진행 중이므로 어떤 확정적인 대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북한은 중국과의 상품교역 이외의 여타의 경제관계에서 상당한 외화 수입을 올렸으며 이러한 외화 수입이 대중국 무역적자를 해결하는 주요한 통로가 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0년 이후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관광이나 서비스와 같은 비상품 교역을 통해 북한이 획득하는 외화 수입 역시 상당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국가여유국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인의 수가 이전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⁷⁾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러한 외화 수입으로 인해 그간 북한의 대중국 수입은 굳이 수출의 정도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 대중국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이를 토대로 대중국 수입을 늘리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만일 북한의 대중국 교역구조가 이러한 방식으로 형성되었다면, 2010년 이후 북한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급속히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수입이 늘어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위의 [그림 6]에서는 적어도 2017년 이후에는 마치 북한의 대중국 수입이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 의존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 2017년 이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먼저 하락하고 이를 배경으로 북한의 대중국 수입이 뒤를 이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찰이 옳다면, 이는 2018년 북한경제가 상당한 문제에 직면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2017년 이전처럼 북한의 대중국 수입 확대를 가능케 했던 비상품 교역을 통한 북한의 외화 수입이 한계에 봉착하여 이제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방식이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경우 수입 역시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면 앞서 언급한 2018년 북한의 대외무역의 붕괴(?)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2018년 북한에서는 강화되는 대북제재로 인해 대중국 수출이 거의 중단되고 이로 인해 대중국 수입마저 2017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북한의 대중국 수입이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사라지지 않는 한, 북한의 수출 증대란 사실상 기대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북한의 수입 역시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 북한의 대외교역은 거의 붕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아마도 2018년 북한경제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대외교역의 붕괴(?) 구조가 비로소 선명하게 표면 위로 드러났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해석이 올바른 것일까? 정말로 2017년 이후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다른 외화 수입 채널이 한계에 봉착하고, 그 결과 북한의 대중국 수입은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규모에 직접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물론 현재로서는 이에 대해

7) 중국 国家旅游局(China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웹사이트(<http://www.cnta.com>, 접속일 2016년 1월 18일).

정확한 답변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3>은 이러한 해석이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사실만큼은 매우 잘 보여준다.

<표 3>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 및 수입액의 그랜저 인과성 검증결과

시차	기간 1(2013. 1~2017. 6)			기간 2(2013. 1~2018. 12)		
	종속변수(F 통계량)		인과관계	종속변수(F 통계량)		인과관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개월	1.903 (0.173)	1.233 (0.272)	수출→수입	1.944 (0.168)	9.245 (0.003)	수출→수입
2개월	1.338 (0.272)	1.362 (0.266)	수출→수입	0.962 (0.387)	4.987 (0.010)	수출→수입
3개월	0.993 (0.404)	2.356 (0.084)	수출→수입	0.666 (0.576)	4.639 (0.005)	수출→수입
4개월	0.479 (0.751)	1.746 (0.157)	수출→수입	0.871 (0.487)	3.342 (0.015)	수출→수입
5개월	1.662 (0.164)	1.448 (0.227)	수출→수입	1.776 (0.131)	2.709 (0.029)	수출→수입
6개월	1.646 (0.159)	1.086 (0.387)	수출→수입	1.779 (0.119)	2.332 (0.044)	수출→수입

주: ()안은 p값. →, ⇒는 각각 95%, 99% 신뢰수준에서 나타나는 인과성의 방향을 의미함.

여기에서 우리는 현재와 같은 북한의 대중국 교역구조가 완전히 정착된 2013년 1월부터 가장 최근 시기인 2018년 12월까지의 월별 데이터를 토대로 북한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성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그랜저 인과성 검증(Granger Causality Test)을 실시하였다. 물론 그랜저 검증은 해당 변수들에 대한 회귀 분석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적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적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중 가장 단순한 형태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을 <표 3>에 제시하였다.

그런데 <표 3>의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이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기간에는 북한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 사이에 별다른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기간 중에는 북한의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의 규모가 변화한다고 해서 이에 북한의 수입이 직접적 영향을 받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 검증 기간을 2018년 12월까지로 확대하면 그 결과는 달라진다. 이 기간 중에는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대중국 수입에 일방적인(one-way) 인과관계를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대중국 수입은 수출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제약을 받지만, 그 역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분명하다. 2017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되면서 상품교역 이외의 다양한 북한의 외화 획득 채널이 위축되고, 그 결과 현재 북한의 수입은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규모에 직접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2018년 북한의 대외무역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한다. 즉 2018년 북한경제에서는 ‘대북제재의 강화 ⇒ 상품교역 이외 북한의 외화 획득 축소 + 북한의 수출 축소 ⇒ 북한의 수입 축소’라는 새로운 구조가 이제까지와는 달리 선명하게 관찰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구조에서는, 현재의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한 북한의 대외교역이 앞으로 더욱 악화되고 나아가서는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2018년 북한경제는 이미 대외교역에 관한 한 일종의 위기상황에 직면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2. 시장 - 대북제재의 충격 범위에 들어서는 시장과 시장활동

그런데 이처럼 부정적인 시각에 서게 되면 2018년 북한의 시장에 대해서도 매우 다른 해석을 내리게 된다. 즉,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의 시장가격이 안정되었다고 해서 대외부문의 충격이 아직 대내경제로까지 확산되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은 매우 ‘순진한(naïve)’ 발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와는 정반대로 북한의 시장가격이 안정된 것은 이미 ‘북한의 시장에서도 대외부문의 충격이 그대로 전해져 일종의 위기상황이 나타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역설적 증거’로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른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과 북한시장의 국제(중국)시장으로의 ‘통합(integr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북한 원화가 아니라 달러화와 위안화 등 경화가 사실상 경제행위의 기본 통화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정 북한상품의 가격이 1,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을 때, 그 가격의 실제 의미는 ‘북한 원화로서의 1,000원’이 아니라 ‘(시장환율이 1대 1000일 경우)달러화로서의 1달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품의 가격이 1달러인 이유는 이에 대한 국제(중국)가격이 1달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일 이 제품에 대한 북한에서의 가격이 1달러를 초과하면 곧바로 해외로부터의 수입이 이루어져 그 가격이 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면 북한의 시장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 대답은 부정적일 것이다. 설사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도 이미 달러화로 표시된 국제가격이 통용되는 북한의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시장에서 통용되는 대부분의 생필품 등 거래상품을 제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도 북한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다수 제품의 시장가격은 급격히 변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정제유와 같은 석유류 등 일부 제품은 현재 제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북한시장에서 거래되는 이들 상품의 경우 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격변동이 있을 경우 북한시장 스스로가 비공식 무역 등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설사 대북제재의 효과가 강력하다고 해도 북한의 시장가격은 단기간에 한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매우 당연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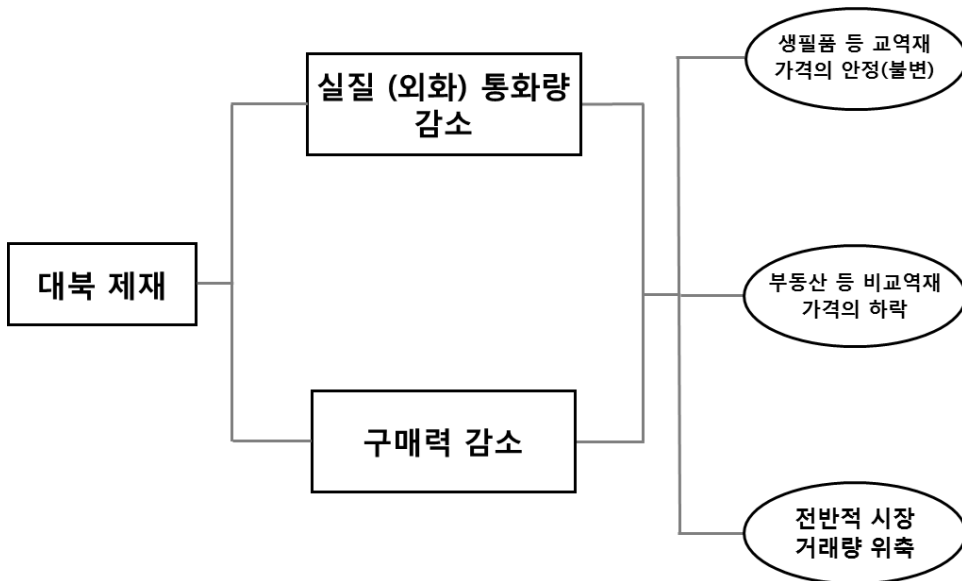
그렇다면 대북제재의 효과는 북한의 시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 물론 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적어도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논란이 크지 않을 것이다. 우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위력을 발휘한다면 북한의 외화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북한시장으로 유입되어 통용되는 외화의 양을 크게 줄일 것이다. 그 결과 한편으로는 북한의 일반 경제주체들 또는 시장의 구매력이 하락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통화량(외화)의 규모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구매력의 하락은 당연히 시장의 (유효)수요를 감소시켜 시장거래를 위축시킬 것이다. 또한 사실상의 통화량 감소는 (자산)가격을 오히려 하락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자산)가격이란 결국 통화에 대비되는 해당 실물자산의 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달러화로 표시된 교역재 상품의 경우, 다시 말해 언제나 해외로부터의 수출입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역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품의 경우, 대표적으로 북한 내부의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실질 통화량 감소로 인한 가격의 하락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 시장에 있어 대북제재의 효과는 크게 세 가지의 서로 다른 형태로 발현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 교역재의 경우 별다른 시장가격의 변동 없이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한다. 둘째, 그러나 북한의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 등 비교역재의 경우 시장가격이 오히려 하락한다. 셋째, 북한의 시장거래 규모가 위축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당연히 대북제재로 인해 ㉠ 북한의 외화 수입이 줄어들어 시장의 실질적인 통화량이 줄어드는 동시에, ㉡ 일반 경제주체들의 구매력이 하락한다는 근원적인 충격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2018년 북한경제에서 단순히 시장가격이 안정되었다고 해서 대북제재의 충격이 아직 북한 내부경제로까지 연결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일면적인 분석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외부 관찰자들이 파악하는 북한의 시장가격은 주로 교역재에 대한 가격이고, 이들 교역재의 시장가격은 설사 대북제재의 영향이 크다고 해도 구조적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이 매우 당연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목해야 할 사실은 2018년 북한경제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대북제재의 여타 영향력이 매우 분명히 발현되고 있다는 관측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최근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상당수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관찰이 있다. 이는 제재의 효과로 북한의 대외교역이 충격을 받고 그 결과 북한의 (외화)통화량과 구매력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2018년에는 북한의 시장거래 역시 예년과 달리 빠르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는 관찰 역시 존재한다. 이른바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말이 북한의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앞서 언급한 대북제재의 다양한 효과들이 2018년 북한의 시장에서 이미 하나의 현실로 관찰된다는 점이다.

[그림 7] 북한시장에 대한 대북제재의 효과



이는 2018년 북한경제에서 대북제재에 따른 충격이 단순히 대외교역부문에 그치지 않고 북한 대내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현재의 북한경제가 무역과 시장이라는 두 가지 축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2018년부터는 이러한 두 축 모두가 대북제재의 직접적 영향권 아래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2018년 북한경제가 이미 강화되는 대북제재로 인해 일종의 위기상황을 맞이하였거나, 아니면 조만간 북한경제가 이러한 위기상황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3. 2018년 북한경제 - 이미 시작된 현실의 위기 vs. 인식의 시차

그런데 위와 같은 부정적 해석에는 한 가지 의문이 존재한다. 만일 2018년 북한경제가 일종의 위기상황에 진입하는 단계였다면 왜 외부세계에서는 이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형식논리적으로 크게 두 가지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 하나는 위의 부정적 해석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의 부정적 해석이 틀리지는 않았으나 외부세계에서는 이를 충분히 느낄 수 없도록 만드는 별도의 요인이 작용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연히 위의 부정적 해석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이라면 이 중 두 번째의 답변을 내놓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논거로 아마도 <표 4>와 같은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에 대규모의 기근과 함께 기존의 경제구조 모두가 해체되는 극심한 경제위기를 경험하였다. 그런데 <표 4>에 따르면 이러한 북한의 경제위기는 멀게는 1980년대 후반, 가깝게는 1990년대 초반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1980년대 말 舊 소비에트 경제의 붕괴로 인해 당시까지 북한에 지원되었던 석유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이로 인해 1990년대 초반부터 북한의 산업과 농업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경제의 위기를 외부세계가 포착한 것은 1990년대 중반의 일이었다. 물론 이전에도 북한경제가 어렵다는 인식은 있었으나 이를 위기로 인식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분명하다. 북한과 같이 접근성에 제한이 있으며, 해당 정보와 데이터가 극히 부족하고, 무엇보다 일반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반응과 이를 통제하는 정권의 움직임이 일반적인 현대 사회와 매우 다른 나라의 경우, 설사 내부적인 경제적 위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외부세계가 이를 즉각 알아차리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표 4> 1990~95년 북한의 석유 및 비료 소비와 곡물생산

	단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석유 소비	(천Br)	IEA 추정	72.1	62.1	53.5	43.9	38.3	33.5
비료 소비	(천MT)	FAO 추정	832	811	783	766	323	104
곡물생산	(백만MT)	북한 공식통계	9.10	8.90	8.80	9.00	7.08	3.50

주: 원자료는 "International Energy Agency",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DPRK/UNDP Thematic Round Table Meeting on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Geneva, 29-29 May, 1998" 이나 이를 아래의 논문에서 개인용

자료: 이석, '북한의 경제위기와 경제변화', 통일논총 제25호 pp.69~100, 2007.

이처럼 2018년 북한경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앞서의 긍정적 시각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의 대외교역은 점점 강화되는 대북제재로 인해 거의 붕괴에 가까울 정도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대북제재에 따른 급격한 수출의 감소로 외화 수입이 감소하고 이것이 급기야 북한의 수입을 본격적으로 줄어들게 만드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그 결과 한편으로는 일반 경제주체들의 구매력이 감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북한경제에서 사실상의 통화기능을 수행하는 달러화와 위안화 등 경화의 유통이 줄어드는 등 실질적인 통화량의 위축효과가 나타났다. 물론 현재의 북한경제에서는 제반 시장가격이 국제가격에 조응하는 달러화로 표시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시장물가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가격에서 벗어나 있는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 등 비교역재의 가격은 이로 인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무엇보다 일반 경제주체들의 구매력 감소로 인해 그간 빠른 성장세를 보이던 시장거래 자체가 정체를 보이는 현상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보면 2018년 북한경제는 매우 위험한 모습을 보였다는 판단이다. 점점 강화되는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대외교역이 충격을 받고 이러한 충격이 점진적으로 북한의 시장활동과 같은 내부경제로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의 후생이 감소하고 그에 따른 내부의 불만 역시 증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경제 특유의 접근성의 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정보와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러한 현실은 외부세계에서 충분히 포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현실을 역으로 감안하면, '만일 앞으로 북한경제가 2018년의 상황에서 더욱 악화되어 외부세계에서 누구나 이를 쉽게 포착할 수 있는 순간이 된다면 이는 곧 북한의 경제상황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임을 의미할 것이다. 현재 외부세계에서는 누구도 명시적으로 북한경제의 위기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를 언제나 머리 속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스러운 일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V. 결론

우리는 본고에서 2018년 북한경제의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이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평가하는 여러 시각들을 소개하여 대비시키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북한경제의 각 분야별 움직임을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을 정리하였고, 나아가서는 이에 대한 부정적 시각 역시 정리하여 앞서의 긍정적 시각과 대비시키는 작업도 수행하였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달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2017년부터 침체상태를 보인 북한의 거시경제추세는 2018년 들어 전반적으로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강화되는 대북제재로 인해 대중국 교역이 거의 붕괴(?)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위축되었으며, 이로 인해 산업생산이 침체하여 공식부문은 물론 비공식 부문의 경제활동도 정체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시장가격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식량사정 등도 크게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둘째, 2018년 북한경제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대북제재의 효과와 함께 북한경제의 내구성과 버티기 능력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중국 교역이 급격히 위축되는 과정에서도 북한경제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자수입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북한경제 스스로가 강화되는 대북제재에서도 일정한 외화자산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대외교역이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시장가격이 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제재의 충격이 북한경제의 대내부문으로는 확산되지 못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비록 2018년 북한경제가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와 같이 여전히 북한경제는 이러한 외부적 환경조건의 악화를 고유의 내구성으로 버티내는 모습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셋째, 2018년 북한경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이미 일종의 위기상황에 돌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강화되는 대북제재로 인해 상품교역 이외의 여타의 외화 획득 채널이 봉쇄됨으로써 이제는 북한의 대중국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자체가 직접적으로 대중국 수입규모를 제약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재의 영향은 이미 시장을 포함한 북한의 내부경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북한과 같이 달러화된 시장 및 국제(중국)시장과

통합된 시장을 보유한 나라에서는 제재의 충격이 생필품 등 교역재의 가격 하락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외화 통화량의 감소와 일반 경제주체들의 구매력의 하락을 통해 부동산 등 비교역재의 가격 하락과 시장거래량 감소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 북한경제에서는 이러한 비교역재의 가격 하락과 시장 거래량의 침체가 현실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현재의 대북제재가 이미 북한의 대외교역을 넘어 북한의 내부경제에 까지 충격을 주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 결과 북한경제는 이미 2018년에 일종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만일 앞으로도 이러한 제재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북한경제의 위기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북한경제를 바라보는 외부의 관찰자들이라면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북한경제에 관한 한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외부세계의 입장으로서는 이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성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부의 관찰자들에게 주어지는 북한경제의 데이터와 정보는 극도로 제한적이고 신뢰성 역시 불확실한 것들뿐이다. 그 결과 북한경제에 관한 한 누구도 '실체'를 확신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본고에서 분명해졌듯이 2018년 북한경제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곤혹스러움이 더욱 선명히 부각되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누구도 '실체'를 확신하기는 어렵겠지만, 계속해서 그 '실체'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언젠가는 누구나 그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를 기대한다.